

사 실

日교과서 불교왜곡 고쳐라

역사왜곡으로 불의를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새 역사 교과서에 한 일 불교문화사 조차도 왜곡돼 있음이 밝혀져 다시 한번 어처구니없음을 느낀다.

일본에 처음으로 불교를 도착해 시킨 고대 아스카(飛鳥)문화는 백제문화의 영향이 절대적이었음을 그 유적과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다. 당시 성덕대왕이 세운 사천왕사나 법흥사는 그 구조는 물론 불상 벽화 탑 등의 조성에 백제계 예술가의 흔적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비슷한 시기 조성된 법흥사 역시 백제인이 짓고 백제에서 가져온 사리를 봉안하면서 당시 관리 1백 명이 모두 백제 옷을 입고 참례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법흥사 백제관음상은 그 중 대표적 작품이다. 문제의 일본 새 역사 교과서는 '백제관음상은 아스카 문화를 대표하는 불상으로 녹나무는 중국과 조선에 자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일본에서 만들어졌다'고 기술하고 있다. 녹나무가 한국과 중국에 자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를 거짓이다. 뿐만 아니라 교과서 어디에도 한반도에서 불교 전래를 언급한 곳이 없다.

역사란 있는 그대로를 밝히고 그 역사를 후세에 가르침으로써 자부심을 키워 주거나 따가운 교훈이 되게 해야 한다. 고대문화가 한반도에서 영항받은 것임을 왜곡하는 일 역시 그런 면에서 옳지 않다. 첨예한 근 현대사 왜곡도 그러려니와 문화사 왜곡이 야말로 보다 심각한 자기부정으로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 넣는 일이다.

일본의 양심들조차 '왜곡된 역사를 가르친다면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은 물론 후세들의 인간행성에도 문제를 남긴다'고 비판하지 않는다.

일본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점검해야 한다. 한번 굶다치는 냄비식 대응으로 이웃의 근원적 잘못을 고칠 수 없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행보로 일본 역사 바로 세우기에 우리가 나서야 한다. 불교문화사 왜곡 확인을 계기로 불교계에서도 불교문화사의 역사적 사실을 세부항목부터 밝히고 바로잡아 이를 일본에 널리 알리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일부 극우세력의 잘못된 이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다수의 일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일본을 우리의 좋은 이웃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그렇다.

새싹포교는 한국불교 희망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1년의 계획은 봄에, 그리고 일생의 계획은 청소년기에 잘 세워야 하며, 일생의 계획을 잘 세우기 위해 어린 시절을 잘 보내야 한다는데 이의를 달 사람은 없다.

자비와 평화가 넘치는 미래를 가꾸기 위한 첫 걸음으로서 어린이 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불교적 트라우마에서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어린이 법회 개설, 유치원 설립, 초등학교 설립, 교육기구 및 교재 개발과 이러한 일들을 총체적으로 맡아 할 지도자 양성,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어린이 포교 정보 교류도 빼놓지 말아야 할 부분이고, 종단 차원에서 어린이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다른 종교의 성직자와 달리 우리의 수행자들은 어린이, 학생, 청년을 위한 법회의 개설과 운영을 필수과목이 아닌 선택과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이는 대중 교화에 진력해야 할 수행자로서의 직무유기 정도를 넘어 불교발전의 걸림돌이

도 하므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그런 즈음에 조계종 제4교구 월정사에서는 얼마 전부터 말사마다 유치원건립 및 위탁운영을 목표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아직 10개의 사찰에서만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린이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함께 발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할 것이다.

특히 강원도 산간 지방에 위치한 월정사의 말사는 영리 목적의 사설 유치원이 들어서기에는 불리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요즘과 같은 농번기에는 교육의 차원은 물론이지만 일손이 바쁜 부모를 대신하는 기능도 크다. 단순한 포교나 교육을 넘어선 부처님 자비의 적극적 실천이기도 한 것이다.

하루속히 모든 사찰마다 어린이, 청소년 법회 개설을 의무로 인식하고, 1사찰 1유치원 운동이 조계종의 모든 교구 및 다른 종단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란다. 교육에 투자한 정성의 양만큼 미래의 희망이 열린다.

'수행점검' 가산포럼 연다

가산불교연구 내달부터 5년간...올바른 수행법 제시

불교 문화가 일궈낸 고결한 인간성의 꽃인 수행의 정보를 대중화하고, 사부대중이라 일컬어지는 수행의 공동체가 만들어진 화합의 정신을 사회화하는 '가산 포럼'이 올해부터 2005년까지 열린다.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새롭게 전개하는 이 포럼은 '수행의 가치와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올해부터 5년간 우리의 수행문화와 풍토 점검에 나선다. (한경기사3면)

포럼을 통해 제3수행법이라 일컬어지는 신중 수행법 등으로 혼란스러운 풍토를 바로잡고, 불교수행의 과거 현재 미래를 조망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는 보편화된 정진문화로서의 불교 수행의 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포럼은 오는 7월 6일-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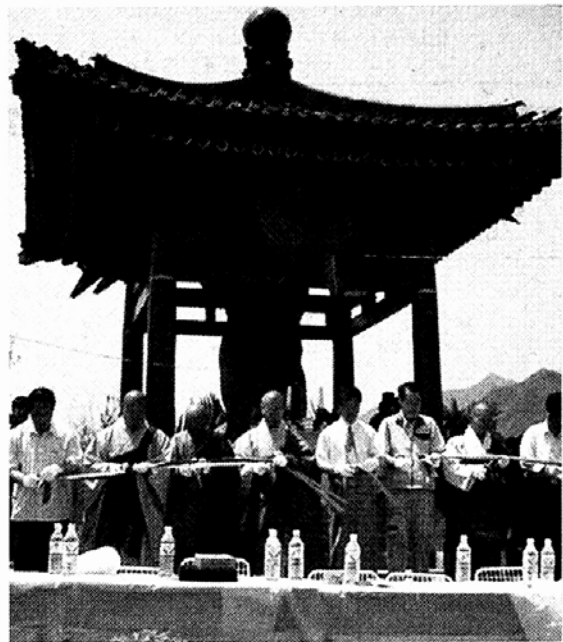
일에 해인사 홍제암에서 '시대정신의 반성과 수행의 가치-몸과 마음 그리고 수행'을 주제로 열린다. 원장 지관스님의 '시대정신의 반성과 수행을 통한 전망'을 주제로 한 기초발제를 시작으로 '철학적 인간학에서 본 수행의 의미와 우리시대의 반성', '유교와 도교에 있어서 수행과 그 전통', '유식학의 수행법과 그 현대적 의미', '화엄사상에서 본 수행법과 그 의미', '가상공간시대의 윤리적 상황자에게 있어 깨달음과 지성', '우리 불교의 수행전통과 그 지성사적 의미' 등을 통해 시대정신과 문화의 객관적 조명 속에서 불교수행의 문제를 다룬다. 오는 12월 열린 예정인 두 번째 포럼에서는 '수행과 개인 그리고 공동체'를 주제로 우리 전통사상과 인물로 본 시대

지성을 반성하고, 수행정보의 대중화를 위한 전망도 짚어본다.

내년에는 1천년간의 불교지성사를 밝히기 위한 '천년의 한국불교지성'을 주제로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2003년에는 '불교의 생명관과 우주의 미래', 2004년에는 '불교와 철학이 말하는 시공의 운영', 2005년 '수행문화의 사회화' 등을 다룰 계획이다.

특히 가산포럼은 일반 세미나나 포럼에서 결핍했던 실천의 측면을 보강하기 위해 매년 사찰에서 실제 수행을 겸한 수련 포럼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같은 포럼의 결과물을 단행본으로 출간해 대중에게 열리는 작업도 병행해, 참 재가자에게 바른 수행의 길로 입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다.

이은자 기자 elee@buddhapia.com



中 선유사에 해초스님 기념비 조계사(주지 지용)는 13일 중국 선서성 선유사에서 '신라고승 해초스님 기념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총무원 문화부장 해자스님, 조계사 주지 지용스님, 선유사 주지 국선스님, 선서성 주지현 김진제 문화국장, 선유사 왕형림 문물관리소장, 연인석 전 아주대 교수와 한국과 중국의 불자 150명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해자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진리의 가르침을 전하고 높은 법력으로 대중을 교화했던 해초스님은 양국인 모두가 받들어 모실 성인'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힘을 모아 한국 고승의 기념비를 세운 것은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선서성=고영배 기자

인터넷 운영자협 발족

불교계 45개단체 참여

카페 사이트서 정보교류

웹마스터, 프로그래머 등 불교계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운영하는 종사자들이 '가칭'불교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발족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돈각)이 8~9일 과산 다보수련원에서 개최한 불교계 인터넷 관리자 연수에 등장한 교계 인터넷 종사자

들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포교 활성화 위해 협의회를 구성했다.

이날 연수에 참여한 45개 단체 70여명은 한마음선원이 운영하고 있는 한나무(www.hannamu.com)에 카페를 개설해 한글대장경과 같은 원천 데이터 공유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불교계 IT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교류를 갖기로 했다. 또한 협의회 산하에 중앙승가대 김용현 교수를 중심으로 한 자문기구나 기술지원기구 등 소모임을 구성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조계종 포교원은 불교계 IT 종사자 연수를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할 계획이며, 대한불교진흥원은 내년부터 불교계 IT산업 발전과 인터넷 포교를 위해 자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인터넷을 활용한 불교 포교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연수는 서울대 종교학과 윤원철 교수의 '인터넷 불교포교와 방법론', 유권준 씨의 '국내외 인터넷 불교사이트의 현황', 중앙승가대 김용현 교수의 '불교계 인터넷 관리와 운영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등의 강의와 종합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과산=김두식 기자

회계사 국제선원·연등국제불교회관

외국인 기초선원 교육장 지정

조계종 교육원(원장직대 계성)은 8일 외국인 기초선원 관계자 회의를 열고 회계사 국제선원과 연등국제불교회관을 외국인선원들을 위한 기초선원 교육장으로 지정했다. 또 계성스님(교육원 교육부장) 성광스님(회계사 주지), 원명스님(연등국제불교회관 주지) 3인

거가 끝난 직후인 9월 초순경 95년 이후 행사교육원을 수료하고 하인거를 해제한 외국인선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산회교육을 실시한다. 한명우 기자

구한 외국인 기초선원운영위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은 올해 하안

경북북부 신도지도자 연수

조계종 중앙신도회 북부경기 지역 사찰신도회 및 신도단체 지도자 연수회가 23일 오전 9시 제25교구본사 봉선사에서 열린다.

이날 연수회는 봉선사 조실 원운스님의 '불교적 세계관', 김재일 두레생태기행 회장의 '생명살림·생태적 삶을 위한 불교의 역할'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된다. 한명우 기자

탑골공원 원각사지 재조사

그 동안 불교계에 요구해온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에 대한 추가 발굴조사가 실시된다. 문화재 위원회는 13일 3분과(사적)와 6분과(매장문화재) 합동회의를 열고 서울시의 탑골공원 성역화 사업과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는 원각사지에 대해 부분 발굴조사를 하기로 했다. 권형진 기자

현대만평 박구원

세상이 변해도 수행정신만은...

사찰수련회 정보센터 운영

8월18일까지...프로그램 안내

2001년도 사찰수련회 정보센터(02-7300-108, www.pogso.org)가 13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개소식에는 포교원 연구실장 명조스님과 불교신문 사장 영담스님, 정보센터 소장을 맡은 포교원 포교국장 주경스님, 교육원 교육국장 견진스님, 동화사 포교국장 종본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8월18일까지 운영되는 사찰수련회 정보센터는 수련회 참석

을 희망하는 불자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안내는 물론 사찰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프로그램 개발, 수련회 개최를 원하는 사찰들에 대한 지원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포교원은 올해부터 수련생활 규칙 및 시간계획, 프로그램 강의내용 등 수련회 운영에 관한 교재와 불교상식, 사찰소개, 사찰예절 교육국장 견진스님, 동화사 포교국장 종본스님 등 사부대중 50여 명이 참석했다. 8월18일까지 운영되는 사찰수련회 정보센터는 수련회 참석

한명우 기자

우리의 전생과 미래는 어디에?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

현오 스님 지음/신국판/236쪽/8,000원

오랜 수행과 포교 활동으로 대중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 온 현오 스님이 안내하는 최면과 전생 체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전생 체험! 전생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된다. 누구나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전생과 현생의 인과응보의 원칙을 깨달아 원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글을 쓴 현오 스님은 오대산 월정사 스님으로 미얀마에서 위빠사나 명상법을 수행하고 현재 선원과 토굴에서 홀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나고 죽고 모든 것을 만들고 없애는' 마음에 대한 수행을 하던 중에, 근래에 대중들의 관심이 높은 최면 전생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과 잘못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 전생과 윤회는 마음을 닦아 해탈하는 것이 근본인 불교의 교리라면 진실한 실명이 가능하든, 그 수행 주제인 스님들이 직접 정리한 이론이 없는 것에 더욱 절실히 이 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년간의 수련과 실습 끝에 이론을 정리하였습니다.



저자 연락처 033)374-5346

현오 스님과 함께 하는

전생 체험과 위빠사나 명상수련 안내

<미얀마 72일>과 <불교에서 본 마음과 최면 전생>의 저자 현오스님이 다년간의 수행과 실습 끝에 개발한 수련 프로그램을 알립니다. 최면을 통해 자신의 전생을 돌이켜 보고 위빠사나 명상을 통해 그 실상을 일깨워 각자가 처한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참하셔서 많은 이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 도 : 현오스님 / 차차석(철학박사, 불교학 전공) / 임승택(철학박사, 위빠사나 전공)  
일 시 : 2001년 7월6일~8일 (2박3일)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치악산 관광농원(033-764-3007)  
회 비 : 10만원 (우체국: 200170-02-082157 유동근)  
접 수 처 : 02)419-1253, 02)571-5413 (6월30일까지 선착순 접수함)

주최: 大智전생연구회

첫째날 세부일정

오후 2:00 - 집합, 인원 점검  
2:00 - 일일소개 및 인사(현오스님)  
3:00 - 요가  
4:00 - 휴식 및 간담  
4:30 - 불교 심리학(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자유시간  
8:00 - 위빠사나 강의(임승택)  
9:00 - 최면 소개와 자기최면(현오스님)  
10:00 - 취침

둘째날 세부일정

오전 5:00 - 요가 및 자비관  
6:00 - 아침식사  
8:00 - 위빠사나(임승택)  
10:00 - 위빠사나 점검 및 간담  
오후 12:00 - 점심  
2:00 - 위빠사나(임승택)  
4:00 - 불교 심리학 ②(차차석)  
6:00 - 저녁식사  
7:00 - 전생 최면 실습(현오스님)  
9:00 - 전생 최면 점검 및 간담  
10:00 - 전생 최면 각자 실습

교통편

■ 승용차 이용시  
영동고속도로 서울에서 강릉 방향으로→  
남원주 인터체인지에서 제천방향으로→  
신림 인터체인지에서 주천방향(제천이 아님)  
국도로 약 10km→  
황문3거리 못미쳐 관광농원으로 좌회전  
■ 대중교통  
원주에서 황문까지 시내버스와 직행버스가 있습니다.